



플레이어, 악기, 저장소

여러분은 이제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아직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과연 고장 났는지 알 수 없는 워크맨을 찾아내 소리가 나는지 잠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케이스를 닫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테이프 릴이 속도를 내어 회전합니다. 다시 테이프를 뒤집고, 테이프를 꺼내 케이스를 닫으면 소리가 납니다. 간혹 청취 중 엉킨 테이프 릴을 연필로 감게 될 때마저 그렇습니다.

각자가 구매한 테이프가 서로 같지 않고, 테이프 플레이어도 제각기 다른데다가, 소리가 나는 공간도 각기 다르니 그 자체로 제각각 엇비슷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카세트테이프를 다 듣기까지 앨범 밖에서 난 소리들은 어찌면, 앨범에서 들은 소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앨범에서 여러분은 피아노 연주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손에 닿기까지 거쳐간 기계들과 장소들이 묻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분명 작곡과 연주와 감상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작업도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작업하는 나’가 모르는 사이에 일상이 작업에 기여합니다. 각 영역들을 분리하지 않고 지긋이 또는 띄엄띄엄 시간을 가지면서 꿰어냅니다.

다루려는 소리가 소음으로 여겨지든 악기 소리로 여겨지든 혹은 도저히 그 둘이 아니던 귀로 듣고 다루는 과정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이내 그곳의 변화와 생리를 긍정하는 마음을 그립니다.

일어나보니 흐트러진 침대

잠에 들지 못한 날부터 일기장에 적은 내용을
아래 간추려 적습니다.

오늘 하루 내 감정과 몸 상태와 정신 상태를 알아채고,
할 일을 하기에 내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인정할 줄
알고 싶어요. 다 같이 잘 살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줄만 알았던 내 마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 아프고 상처가 나서 평화가 깨지는 게
두렵고 불안해서 내심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침묵과 부재를 동일시해왔습니다.
서로를 믿는 친밀한 사이에 흐르는 편안한 침묵을
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고요함이 저 멀리 있는데
다가갈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고맙겠습니다).
음악가에게 당신의 그 창작물을 어떻게 들으면
좋겠냐고 질문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에 의존하지 않으며 심지어 잊을 수도
있다면, 들리는 대로 듣고 싶을 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반면 생각에 따라 소리들은 닳기도 하고,
신선해지고 새로운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나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어디로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다거나
막막하다거나 곤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소리는
나와 달리 횡설수설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들립니다. 가만가만 듣다 보면
움직임이 보입니다. 느리지만 조직적인 움직임들,
굴절하는 묵직한 음, 자글자글한 입자들.

땅은 하늘로부터 달아나지 못한다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중단하게 됐기 때문이지, 죽음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간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부재중인 상태가 지속될 때 가져다주는 시련이 내 인생에 각인되듯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개별의 신체에 한정되지는 않을 텐데요.

다나 해러웨이 donna haraway는

『반려종 선언』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조각가 앤디 골즈워시andy goldsworthy에 대해 이렇게 적습니다.

그를 꼭 빠지게 한 것은 살아있는 식물이나 대지, 바다, 얼음, 돌 속을 흐르는 시간의 척도나 유동이다. 골즈워시에게 토지의 역사는 살아있다.(…)

변천과 소멸은—그리고 생물 및 비생물의 행위체는 물론, 인간 및 비인간의 행위도—단지 그의 주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파트너이고 소재인 것이다. 이러한 죽어야 할 운명을 진 유한의 유동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하는가라는 질문은, 골즈워시의 예술에 언제나 들어있다.

골즈워시는 토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의 일면을 지형지물을 활용해 눈에 띄게 드러냈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기록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골즈워시는 카메라 기술 덕분에 자신의 작업을 둘러싼 총체적인 상황을 기록할 수 있었고 큰 규모의 작업이 가능했다고 밝히는 한편, 선박의 돛대에 자신을 묶은 윌리엄 터너처럼 장소의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 자체도 예술가에게 큰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이 앨범을 들으면서 ‘신토불이’라는 표현을 곧잘 떠올립니다. 채소 박스에 적힌 사자성어의 모습과는 다르게 내가 사는 이 터전과 몸이 다르지 않고, 결코 분리되거나 독립된 관계가 아니라는 말로 읽힙니다. 익숙한 줄 알았기에 나름대로 낯선 이 표현을 지나가며, 지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가 연결되는 다양하고 부분적인 길들을 터 내는 과정을 그립니다.

«Dear Customer»

2020. 6. 12. 금요일

진광

